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1

I. 서론

1. 잠언

본서의 제목인 ‘잠언’은 히브리 원전의 첫 구절인 ‘솔로몬의 잠언(미של레 헬로모)’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보다 단축된 형태인 ‘잠언(미של레)’라고 불렀다.

본서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려면 ‘잠언(미של레)’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히브리어 ‘미של레’는 ‘마살’의 복수형으로써 ‘속담들, 격언들’이라고 번역된다. ‘마살’이라는 단어는 ‘속담’이나 ‘격언’이란 말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마살’은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구나 속담들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예언이나 교훈시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더 넓은 의미인 ()나 의미 깊은 개념이 응축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1) 기록 및 수집 연대

본서 자체 내에서는 내용의 기록 및 수집 연대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본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의 내용은 기자 미상의 부분으로 그 기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의 재위 기간(B.C. 970-931년)에 쓰여 졌고 모든 부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 시기로 추측되는 B.C. 400년경 이전에는 최종 수집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서의 많은 부분이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은 그 시기가(B.C. 725-697년) 곧 본서 전체의 최종 수집 시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2) 기자

본서의 내용은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다. 본문 1:1, 10:1, 25:1 등과 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요 부분의 세 곳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중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 수집된 내용이다.

한편 본서에는 솔로몬의 작품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22:17~24:34의 내용은 익명의 ()에 의한 작품이며, 30장과 31장은 각각 아굴과 르무엘의 작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구조

본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본 강의에서는 기자 혹은 문학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구분하였다.

- ①젊은이들을 위한 권고(1-9)
- ②솔로몬의 잠언(10:1-22:16)
- ③현자의 잠언(22:17-24:34)
- ④히스기야 왕 당시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25-29)
- ⑤아굴의 잠언(30)
- ⑥르무엘의 잠언과 현숙한 여인에 관한 잠언(31)

II. 본문

1. 참된 지혜와 그 성격(잠 1:1~33)

[표제 : 솔로몬의 잠언(1~6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7~19절), 지혜가 부른다(20~33절)]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서 중 하나인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간의 철저한 윤리 의식이 심층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 () 중 가장 뛰어난 문학이다. 내용적 전개 과정에서 일관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하며 섬기고 그분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간임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이 신앙적인 부분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고도의 비유법과 세련된 대구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솔로몬의 잠언(1-7)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1절)

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일종의 역사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서 언급한 솔로몬 왕과 본서의 솔로몬 왕이 동일함을 지시하고 있다.

② ‘잠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가 갖는 신학적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혜의 형식적 요구는 바로 율법의 외면적 준수인 것이다. 이 사실은 솔로몬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기에 이르렀다.

(2) 지혜를 얻으라(2-3)

① ‘알게 하며’, ()’(2절): 솔로몬이 잠언을 베푸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잠언의 목적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② ‘받게 하며’(3절): 원어로 ‘라카흐’라는 동사로 지혜 문학에서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받아들여야 할 훈계의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한다.

(3) 두 가지의 유익성(4-6)

① 어리석은 자와 ()를 슬기롭게 한다(4절)

②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만든다(5~6절)

(4)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자는 참 지혜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서 전체의 ()인 동시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인간의 온전한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근간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7절):** 히브리인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가 없다. 그러나 본서는 종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 대한 ()’라고 하는 어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후에 예언자들에게서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서에서 지시하

고 있는 내용이 후대에 중요한 신학적 동기를 던져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온전한 ()는 재앙을 면케 함(8-33)

(1) 악을 피하는 지혜(8-19)

- ①지혜에 관한 훈계가 다른 어떠한 삶의 방식보다 우선함으로 순종을 요청함(8~10절)
- ②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유혹을 묘사(11~19절)
 - ◎함께 가서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자는 제안(11,12절)
 - ◎아주 쉽게 부자가 되자는 꾀임(13,14절)
 - ◎죄인들의 유혹은 현실적인 무료감을 한 순간에 해결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상 헛된 망상임(15~19절)

(2)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20-33)

- ①삶의 도처에 나타난 지혜(20~23절)
- ②지혜를 거부한 미련한 자(24~25절)
- ③() (재앙)에 이르는 미련한 자(26~32절)
- ④지혜(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음(33절)

본 단락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과 결과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분류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특성	①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②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③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④하나님에 관한 ()을 기뻐하는 자	①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자 ②훈계를 멸시하며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 ③자신의 ()만을 탐하며 즐기는 자 ④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미워하는 자
결과	재앙에서 구원 받음	멸망에 이르게 됨

****삶의 도처에 나타난 지혜(20~23절):** 지혜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힘찬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장소들은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공동체 삶의 사건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집결되고 어우러지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여 변명하거나 핑계 삼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①하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인해 미련한 자들에 대한 ()를 보여주신다는 사실과 ②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성에 대한 언급(2:1-22)

[표제 : 지혜가 주는 유익(1~22절)]

본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수와 같은 22행으로 된 시로 하나의 연속된 조건문을 이루고 있다. 특징으로는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주제들을 본장에서 미리 알려주며 본서가 여러 지혜 모음집들로 편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이 한 사람의 기자 혹은 편집자에 의해 매우 치밀하게 편집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1) 지혜에 대한 관심과 결과(1-9)

(1) 지혜에 대한 추구(1-6)

- ①“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1절)
- ②“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2절)
- ③“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3절)
- ④“… 그것을 구하며 … 그것을 찾으면”(4절)

지혜를 구할 때에는 지속적인()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동적인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가 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온전한 분별력의 근거인 ‘()’라고 확신하며 지혜를 향한 간절한 ()을 요구하고 있다.

- ⑤“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5절)
- ⑥“대저 여호와를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6절)

지혜를 간절히 ()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므로 그를 온전히 경외할 때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

(2) 지혜의 도덕적인 효용성(7-9)

①본 단락에서 지혜는 단지 지적인 학식이 아니라 마음과 도덕적 행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과 ‘()’이라는 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7절)

②하나님께서서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곧 지혜를 간절히 찾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의 길을 (), 보전하신다(8절).

③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

‘완전한 지혜’(7절)와 ‘공의, 정의, 정직’(9절)이다. ‘완전한 지혜’(7절)는 이후 본서에서 ‘참 지식’(8:14), ‘참 지혜’(18:1) 등으로 바뀌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율기서,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능력’, ‘도움’, ‘도락’, ‘이해’, ‘지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정직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공의, 정의, ()’(9절)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다.

2) 지혜와 대조되는 특성들(10-19)

(1) 지혜로 인한 행악자로부터의 보호(10-12)

①지혜자는 심령 속 깊이 ()과 즐거움을 깨닫게 됨(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②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를 받음(11,12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2)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특성(13-15)

①악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임(13~15절)

㉠‘어두운 길’(13절), ㉡‘행악을 기뻐하며 악인의 ()을 즐거워함’(14절),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15절)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따라 살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결국 영생의 길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3) 지혜가 악한 여자들에게서 건져 줌(16-19)

① 음녀의 음탕성을 묘사(16,17절)

㉠ ‘말로 호리는’(16절): ‘아침하다’라는 뜻으로 ()을 묘사한다.

㉡ ‘짜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17절): 이는 패역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남편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부일처의 혼인 언약을 단절시킴을 뜻한다.

② 유혹에 넘어간 자의 파멸(18,19절)

㉢ ‘집은 사망으로,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18절):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을 의미하며 살아 있어도 실제적인 삶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로서의 삶만 존재하게 됨을 말한다.

㉣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19절): 영벌의 심판에 처할 것을 경고한다. 성적 타락은 신앙적 타락과 직결된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토ム(John Chrysostom)은 “음탕한 자를 정조 있는 인간으로 돌이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는데, 결혼 관계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언약(17절): 이 개념은 본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들로 지칭하는 사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서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본 단락은 ①하나님의 백성은 전 생애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를 따라서 행해야 함과 ②악인의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3)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들(20-22)

(1) 지혜의 선한 길로 인도함(20-22)

본 단락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①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함(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②지혜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인 ()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을 얻는 것을 현세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로 여겼다. 본 절에서 사용한 ‘땅’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가난한 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악인들의 비참한 결과(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므로 본 단락을 통해 ①부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을 힘입어 살아갈 때 적극적인 ()이 가능하게 됨과 ②하나님의 경륜은 매우 오묘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악인의 번창함을 보며 실망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결국 스스로의 지혜로 인해 멸망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을 두 가지 맥락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소극적인 측면(10~19절)	적극적인 측면(20~22절)
①()의 길에서의 구원	①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함
②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의 구원	②()의 길을 지키게 함
③음녀에게서의 구원	③정직의 길로 행하게 함
④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의 구원	④온전한 모습을 지키게 함

3.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복(3:1-35)

[표제 :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본장은 2장에 비해 내용상 진전을 보인다.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에서(2:1-4) 그 말씀을 지켜 ()하라는 것으로(1,21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에서(2:5) 범사에 하나님의 ()를 사모하라는 명령으로(6절) 등 보다 구체적인 복으로 내용이 전환된다.

1) 지혜로 인한 복(1-12)

본 단락은 명령적 조건과 그 결과를 교차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각 조건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질 ()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1)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1-4)

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1절)[명령]

→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2절)[결과]

②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3절)[명령]

→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4절)[결과]

지혜롭고 바른 생애가 현세에서는 장수와 평강의 형태로 보상된다는 점을 말할 뿐, 결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앞서 이미 언급했던 지혜자의 영구한 땅의 거주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2:21).

(2)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유익들(5-12)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① () 하나님 의뢰(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5절)[명령]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6절)[결과]

② 철저한 하나님 경외(7,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7절)[명령]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운택하게 하리라”(8절)[결과]
③철저한 하나님 공경(9,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9절)[명령]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10절)[결과]

④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11,12절)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11절)[명령]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12절)[결과]

****인정하다(6절):**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관찰하다’, ‘깨달다’, ‘찾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구약 성경에 약 940회 정도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식, 짐승의 지식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으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혜 문학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용례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9절):** 본 단락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도록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섬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십일조가 제시된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출 34:20; 신 16:16, 17).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지혜자에게 중요한 신앙 행위이다. 이 행위를 통해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지혜의 고상함(13-20)

본 단락에서 기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1,2장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지혜자와 악인의 대비 속에서 악인의 현실적인 흥망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 지혜자에게 참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이다.

(1) 세상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14,15)

①()는 ‘은’, ‘정금’보다 낮고 ‘진주’보다 귀하며,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음(14,15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좇는 무리들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며 지혜의 가치를 대비시키고 있다.

(2) 지혜의 능력(16-18)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혜를 인격화 시켜서 표현하고 있음

①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음(16절):

양손이 모두 쓰인 것은 지혜를 획득한 자가 얻을 복의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히브리인들의 관념상 ‘오른손’은
(), ‘왼손’은 ()을 상징한다.

②지혜의 길은 즐겁고, 지혜의 지름길은 ()이라(17절):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삶은 어떠한 외적 장애나 내적 곤고
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18절): 기자는 지혜를
‘생명나무’로 설명하며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별개임을
말한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와
그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기자의 지혜에 관한 생각은
창세기에서의 언급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선포된다. 이를 통해 지혜로 인한 ()함이 곧 영원한 생명에
도달케 하는 구원의 비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3)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관계(19,20)

①‘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19절):
지혜가 하나님의 부분적인 속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근본적 존재로서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실행자 자체 이기도
함을 암시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한
지혜로 나타내셨고(눅 11:49), 그리스도가 창조의 직접적인
실행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요 1:3, 10; 골 1:6).

②‘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20절):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로 볼 수 있다. '이슬이 내리게' 하신 것은 땅의 생명체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치밀 하신 배려를 암시한다. 가나안 땅에서는 일몰 후부터 부는 서풍이 바다의 습기를 실어 나름에 따라 밤 동안 이슬이 들판 내린다. 특히 건기인 여름에 농작물의 생육은 주로 이 이슬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본 단락을 통해 ①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귀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는 사실과 ②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3) 지혜자와 타인과의 관계(21-35)

본 단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예고하여, 지혜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자의 의도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 기자는 중간(27~30절) 부분에 지혜자와 타인의 관계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기자의 특별한 의도로 파악된다. 즉 기자는 지혜자가 추구하는 지혜의 성격이 현실 속에서는 주위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1) 지혜자들이 누리는 복들(21-26)

- ① '영혼의 생명'(22절), '네 목의 장식'(22절)
- ②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23절),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23절)
- ③ '()'(24절)
- ④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음'(25절)
- 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보호하심'(26절)

**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23절):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을 말한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인도하나, 본서에서는 지혜가 그 사역을 대신한다.

** '대저 여호와와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26절): '의지할'은 원어로 '허리'를

뜻하며, 히브리적 개념상 ‘허리’가 신체 중 힘의 근원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허리’는 ‘확신’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전적으로 의지해도 될 만큼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 지혜자의 참다운 이웃 관계(27-31)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현시인 동시에 지혜자의 선에 대한 자세를 포괄한다.

- ① ‘선을 베풀라’(27절)
- ② ‘이웃을 신속히 도와주라’(28절)
- ③ ‘이유 없이 남을 해하지 말라’(29,30절)
- ④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31절)

**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28절): 두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를 구제의 ()을 촉구하는 것이다. 돕기로 약속한 사람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점에서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미루지 말고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본문의 흐름상 첫 번째의 관점이 더 자연스럽다. 구제를 미루고 싶은 유혹은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다. 본 절은 모든 ()을 과감히 뿌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지혜자와 악인의 종말(32-35)

지혜자가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본 단락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음’(32절)
- ②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 저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음’(33절)
- ③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34절)
- ④ ‘지혜로운 자는 ()을 기업으로,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가 됨’(35절)

**‘겸손’과 ‘거만’(34절):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온전히 시인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이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이다. 반면에 ‘거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는 자이며,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자세이다.

***본 단락을 통해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세상 속에서 곤고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궁핍한 처지로 인해 시험받기 쉽다. 그러나 악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혜(말씀)을 청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3장은 삶의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할 악인들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하는 삶이다.